

美 장학생에 한국어 가르치며 문화 전파

언어교육원, 미국 위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수업·야외체험활동... '5·18'정신 결집 교육



지역대학 탐방

전남대학교

미국은 '주목해야 할 세계 언어'로 14개를 꼽는다. 미 국무부는 다양한 전공의 미국 대학생 가운데 장학생을 선발해 이들 14개 언어를 해당국가에 가서 직접 배우도록 하고 있다. 물론 우리말인 한국어도 여기에 포함된다.

18일 전남대 언어교육원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위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인 CLS(Critical Language Scholarship)를 올해도 위탁받아 운영한다.

지난 2015년 CLS 한국어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한국어연수 현지교육기관으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이후 4년째 연속이다.

미국 전역에서 선발된 28명의 CLS 한국어 장학생들은 지난 9일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오는 8월3일까지 8주간(160시간) 한국어교육을 받게 된다. 강의실 교육만이 전부는 아니다. 문화수업이나 야외체험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 전반을 알아가는 시간도 갖는다.

특히 전남대는 이들 미국 학생들에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육 및 영화상영, 국립묘지참배 등도 계획하고 있다. 광주를 알리고, 5·18 정신을 세계에 전하려는 작지만 소중한 노력이다.

미국 학생들은 연수기간 동안 광주 시내 가정에서 홈스테이 생활을 하며 한국문화를 보다 깊이있게 배우고 경험한다.

전남대 학생들을 '1대1 언어파트너'로 연결해주기도 한다. 미국 학생들에게 생생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미 국무부가 선발한 28명의 장학생이 한국어 등을 배우기 위해 전남대를 방문,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언어파트너 학생들은 8주 동안 미국 학생들의 과제수행, 한국어학습, 문화체험활동 등을 돕는다. 자연히 전남대생들 또한 생활영어를 훨씬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하는 묘안이다. 국제적 안목도 넓히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까지 높일 수 있으니 금상첨화다.

엄철주 언어교육원장은 "4년 연속 미

국무부의 권위있는 CLS 프로그램의 위탁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전남대의 위상과 언어교육원의 한국어교육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다양한 국내의 기관 및 대학과의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대 학생들 독서 문화 확산 '앞장'

'서(書)로 만남 독서클럽' 운영
우수클럽 시상식 등 마련

광주대가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18일 광주대 호심기념도서관에 따르면 최근 '서(書)로 만남 독서클럽' 시상식을 가졌다.

'서(書)로 만남 독서클럽'은 학생들의 독서토론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학기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1학기 프로그램은 지난 3월부터 11주 동안 10개 클럽에 50여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호심기념도서관은 독서모임 성실도, 독후감 작성, 독서 토론 등을 평가해 '소망보다 대망'팀(김인에 학생 등 5명)을 최우수 클럽으로 선정했다.

김인에 학생은 "다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 만나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생각을 나누면서 보다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게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광주대 호심기념도서관 학생들의 독서토론 활성화를 위해 '서(書)로 만남 독서클럽'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최근 우수클럽 시상식을 가졌다.

독서클럽 학생들은 회의 공간과 다과 지원, 독서클럽 지정 도서 우선 지원, 학내 장학 마일리지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호심기념도서관은 '서(書)로 다독다독(多讀多讀)' 뿐 아니라 장애학생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돕는 '서(書)로 동행', 아동 독서를 지역 사회에 기부하는 '서(書)로 나눔' 등 다양한

독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수 등을 평가했으며 전자책 다독상은 최고의 학생, 오디오북 다독상은 박동혁 학생이 받았다.

한편, 광주대는 '서(書)로 만남', '서(書)로 다독다독(多讀多讀)' 뿐 아니라 장애학생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돕는 '서(書)로 동행', 아동 독서를 지역 사회에 기부하는 '서(書)로 나눔' 등 다양한 독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전남대 창업보육센터 6년 연속 '최우수기관'

교육부 '학생창업유망팀 300'서도 전국 최다 배출

전남대 창업보육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각종 정부 창업지원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18일 전남대 창업보육센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280개 창업보육센터(광주·전남·제주지역 29개)를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상위 그룹에 선정됐다.

이로써 전남대 창업보육센터는 지난

2012년부터 6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객관적인 역량의 우수성을 다시한번 과시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광주시 청년예비창업자 지원사업'에서도 19명의 청년창업자를 발굴하는 등 지역 창업전문기관으로서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또 기술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이노폴리스 캠퍼스사업'도 6년째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주관한 '2017 학생 창업유망팀 300'에서는 전국 최다인

19개 팀을 배출했고, 다양한 창업경진대회에서도 수상 성과를 올렸다.

전남대 창업보육센터는 현재 청년창업자 및 예비기술창업자를 포함한 46개의 입주기업에 창업보육하고 있으며, 45개의 학생 창업동아리 활동을 지도하고 있다.

원용관 전남대 창업보육센터장은 "갈수록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창의성과 사업성을 갖춘 기업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의 모든 자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호남대·동신대 간호교육 5년 인증 획득

학사 이수...국가시험 응시 가능
12월11일~2023년 12월10일까지

호남대·동신대 간호학과는 18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주관한 '2018년도 상반기 간호교육 인증평가'에서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5년 인증을 획득했

다고 밝혔다. 인증 기간은 오는 12월11일부터 2023년 12월10일까지 5년이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교육부의 지정을 받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주관해 간호학 프로그램의 교육 역량을 심사·인증하는 제도로, 비전과 운영체계·교육과정·학생·교수·시설·교육성과 등 6개 영역 32개 항목을 평가한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간호교육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생에 한해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호남대 간호학과는 모든 항목과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5년 인증을 획득했다. 호남대 간호학과는 지난 2006년도에 입학정원 30명으로 신설돼 현재 입학정원 107명으로 증원했다. 특히 신설 이래 지속적으로 간호사 국가고시의 높은 합격률뿐만 아니라 우수한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